



1999년
10월 15일
제 14 호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 조남진 편집인 :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0361)257-1260

'99춘천시민초청연합복음선교대회



강사 이 호 문 감독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 총재,
인천여자신학원 원장,
송의간리교회 담임장,
감리교회 감독

강사 인천송의감리교회 이호문감독, 석사교회서
성시화운동 태동 28주년 성시본부창립 3주년 기념
10월 18일 밤부터 새벽5시 오전10시30분 저녁7시 집회

춘천기독교연합회(김광국목사)은 춘천지역의 복음화와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천송의감리교회 담임목사 이호문감독을 강사로 매일 새벽5시 오전10시30분 오후7시 집회를 열게 된다. 이번 복음선교대회는 춘천지역 350여교회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1972년에 출발한 성시화운동이 이제 28년이 되었고 성시운동

본부 창립 3주년을 맞아 기념하는 뜻깊은 집회이다.
부흥성회 기간동안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순서를 담당하고 성가대, 찬양팀, 안대봉사, 음식집대봉사와 헌수막 제작 제침 등 협력으로 춘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절집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단군상 건립 반대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춘천기독교연합회 대구기독교연합회 등 반대집회

단군상 건립반대 및 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 민을 망국적 우상숭배로부터 해방시키고 공공교육기관의 우상교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범기독교대립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단군상 건립반대 및 철거추진위를 위한 전국지역대회회의를 가지고 이날 결성된 1백70여개 지역 기독교연합단체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반대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 사하구기독교회의는 지역 내 하남초등학교에 건립된 단군상상 철거 추진을 위해 23일 학

교를 방문하였으며 학교측에 건립 반대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29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대구제일교회에서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군상건립 반대 및 철거추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기로 했다.
결의대회 후 참석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가행진을 하였는데 충무 친필전목사는 망국적 미신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대구지역 1천2백개 교회 50만 성도는 반대 및 철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성군기독교연합회도 지난 8월 25일 의성교회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후 의성단초등학교와 남부초등학교를 방문해 철거를 요청했다.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광국 목사)는 9월 26일 오후3시 춘천 순복음 만천성전에서 초교파적으로 단군상등 미신우상타파를 위한 집회를 갖고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추진기로 하였다. 현재 단군상은 전국 365곳, 강원도 26개 곳에 설치되어 있다.(춘천4, 홍천2, 화천2, 횡성1, 평창2, 대관령, 강릉5, 양구1, 영월1, 양양2)



한민족세계교회 지도자대회 일정 확정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세계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1세기의 세계 복음화를 다짐하는 제1회 한민족 세계교회 지도자대회의 규모와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준비위원회(위원장 : 오은철 목사)에 의하면,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든스 힐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의 첫날인 19일엔 개회예배(신교 : 이종표 목사)와 세계 14개 지역대표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둘째날인 20일에는 조한기대회, 주계강연(이상현 목사), 세미나(박창환 목사), 강연(이근삼 목사), 한민족세계교회 지도자회의와 창립총회 주계강연(바우 목사) 등이 열린다. 또한 21일에는 세미나와 폐회예배 등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번 대회의 참석대상은 전세계 104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교회 지도자로 스카 고단 총회장과

총무 스면환기관장 △교계지도자 △현직신교사 등으로, 한국에서 50명 정도 150여명이 초청된다.
오위원장 "이번 대회와 한민족 세계교회지도자회의의 창립을 계기로 21세기의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세계 한인교회의 역할을 하나 모으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전세계 선교네트워크 구축과 선교정보지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의 나를 위해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고요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오늘 하루 동안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가
마음의 경건함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지혜를 찾아 당신에게 나아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평안을 찾아 당신에게 나아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 동안
두려움과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사랑을 찾아 당신께 나아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원한을 갖고 용서하지 못하거나
또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동행하며
당신과 더불어 마침으로
내가 오히려 갖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인도, 방글라데시 영적전투 기도세미나 지원

조은제 장로·기정희 집사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두 기도세미나에 동참을 위해 현지로 출발하였으며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그곳에서 기도의 용서와 함께 영적전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에서 도전받고 인도 성시화에 앞장선 이영진, 강은경 선교사와 기도세미나를 했던 도시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중보기도와 전도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금번 연합하여 인구 1억의 비하루즈 복음화를 위하여 열렬요새가 있는 '판문도시' 10개를 선정하여 기도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영적전투 기도 세미나'가 놀라운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한다.

조은제장로 부부는 세계적인 기도의 전사로서 자원, 병원과 직장일을 잠시 멈추고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되는 '영적전

10-40창문 지역을 위한 기도(Praying Through the Window)

- 10-40 창문 지역에는 32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 95%의 사람들이 미전도 속속이다.
 - 수억의 사람들이 일생에 단 한번도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다.
 -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건교한 진이 이 지역에 있다.
- 1차 10-40 창문 기도 운동 : 1993년 10월 전세계에서 2,300만의 크리스찬이 동참.
2차 10-40 창문 기도 운동 : 1997년 10월 전세계에서 3,800만의 크리스찬이 동참.
3차 10-40 창문 기도 운동 : 1997년 10월 전세계에서 5,000만의 크리스찬이 동참.
4차 10-40 창문 기도 운동 : 1999년 10월 전세계에서 8,000만의 크리스찬이 동참.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문화예술이 있는 도시 춘천

이제 사랑이 넘치고 비전이 있는 도시를 만듭시다.

어려운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축복의 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환경친화적 산업도시로
쾌적한 삶의 장으로 가꿉시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춘천시민의 긍지를 키워 갑시다.



시민모두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과 지혜로 미래를 계획하는 도시춘천!



밀레니엄 맞이 100일기도에 돌입한 순복음교회



김주환 목사

순천순복음교회(김주환 목사)는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전교인 100일 기도 돌입하였으며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한다. 기도회는 만천상전에서 매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드림게 이어지고 순천선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건인도 모른다. 순복음순천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

순천순복음교회 부목사들 개척교회에 파송키로

순복음순천교회(김주환 목사)는 개교회 단위로 교회의 확장계획을 마련하고 10월 3일 오후3시 예배시 광고로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였다. 현재 본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부목사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동안 매년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발표를 들은 당사자인 부목사들은 환영하였으며 많은 성도들도 욕심없는 당회장 목사의 넓은 마음에 찬사를 보냈다. 많은 대형교회들도 서로 돕고 짐을 나눠주는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교회들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기운 기자)

“복음의 물결이 교도소를 변화시킨다” 김주환소장과 신우회원을 발벗고 나서

김주환장로는 2월 12일 경북 청송제2교도소 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복음전파에 역량을 두고 힘쓰고 있다.



김주환 장로
(청송제2교도소 소장)

적용이 어려운 재소자와 신우회원이 일대일 대화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사정상 명치급을 받지 못하는 재소자를 위해 사비를 털어 돕고 있다. 이들의 정성으로 주님

을 영접하는 재소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불우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을 지속적으로 도와 밝은 교도소 이미지에 일조하고 있다. 김주환장로와 박길후신우회장 이하 신우회원들은 성령의 역사가 청송교도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도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교도소의 복음화를 위해 봉사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성서화운동 홍보용 브로chure, 팸플렛 제작 배포 브로chure 5,000매 팸플렛 5,000매

순천의 4만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의 성서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창 분하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광플렛(브로chure)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성서화의 목표와 개념, 연혁, 추진방향 등 성서화운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하여 성서분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모았고 기독교학문연구회의 동향으로 편집을 거쳐 제작에 들어갔으며 10월 18일 배포될 예정이다. (김준배 기자)

양인평장로 부산고등법원장에 발탁



양인평 장로
(부산고등법원장)

성령의 향기나는 꽃꽂이 선교회 초교과 선교봉사단 장애인을 도와, 93년 발족

“꽃꽂이선교회”(대표 서하옥)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도청 앞 시민회관에서 “장애인들 꽃꽂이 전시회”를 개최한다. 역대상 29장14천 명을 주제로 제능있는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예수사랑선교회에 기탁,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돕는데 소중하게 쓰여지게 된다. 많은 성도들의

대천지방법원장 양인평장로는 10월 8일자로 부산광역시 고등법원장으로 승진 발령받고 부임하였다. 양장로는 순천과 대전법원장 재직시 성서화운동에 앞장섰으며 이제 함도 부산지역을 성서화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믿는다.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1993년 소양성경교회(이원호 목사)를 중심으로 발족한 초교과선교회로 미자립교회 지원과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선교회이다. 매주 목요일 성전, 선교용 꽃꽂이강습 및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의전화 : (0361)253-2004~5

제3회 CBS배 기독교교역자 친선테니스대회 10월 18일 춘천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춘천기독교방송(한국연 본부장)은 가청지역내 목사님들의 친선과 화합을 위해 마련한 기독교교역자 친선테니스대회를 10월 18일 춘천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개최한다. 9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강릉지역

방송 개국과 함께 강원도 대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수준급 실력의 목사선수가 많아 볼만한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격은 춘천CBS방송 가정지역 내 목사님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문의 : (0361)255-2001



스남성경교회(이원호 목사)는 10월 4일~10월 6일까지 이등식목사를 감사로 모시고 99주제 성령무용 성취를 기했다.



석사강교회(임택환 목사)는 10월 6일 저녁7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애와 간증의 밤”을 열고 노로 헌전도시와 목숨숨기 가수들의 가스펠로 은혜를 받았다.

김동열장로 명예기자 단장 취임



김동열 장로

순천성신신문 운영위원인 김동열장로는 10월 4일 오후7시 성신신문 명예

기자단 총회에서 기자단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단장은 취임사에서 성신신문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문이 되고 명예기자 활동에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떠나가겠다고 말하였으며 기사가 누수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새로운 뉴스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단장은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도청직장 선교회를 창설하였으며 현재 평화감리교의 시무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또한 틈틈히 도내 및 전국교회에서 신앙간증으로 신앙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세계 감리교회 남선교회 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대표 이기종 장로 부회장에 선임



이기종 장로
(원주선교회장)

세계 감리교회 남선교회연합회 창립총회가 지난 9월 20일 홍콩 해내시 소재 중국감리교회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미국 감리교회본부 선교총무인 Joe Harris 목사의 사죄로 시작한 총회는 연

저 각국의 남선교회 연합회 현황보고가 있었는데 한국대표로 이기종장로(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이상규장로(감리교회본부, 평신도교 총무), 이태명장로(대체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한국남선교회 활동상황을 보고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임원 선거에서 회장은 미국대표 제임스 홀싱어박사(켄터키대학교 교단이사장, 평신도)를, 부회장은 아시아권을 대표하여 이기종장로와 코스타리카의 루이스 파로모 감독과 아프리카 케냐의 감독회장인 나탈부리 감독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1년 7월 26일 영국 브라이튼에서 열린 세계 감리교회 대회때 세계 남선교회 주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주장을 한국 김선도 감독을 추천하였다.

사교집단 ‘다윗과’ 재건 꿈꾸고 있다

미연방수사국과 대치중 발생한 화재로 신도 86명이 사망, 미국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사교집단 ‘다윗과’가 잔존 신도를 중심으로 재건을 꿈꾸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의 한 토크소 사회자와 다윗과 생존자들은 9월 19일 다윗과 교회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토크소’ 사회자 알렉스 존스(25)는 이날 ‘다윗과’를 기념하고 그날 발생한 화재의 책임이 연방수사국에 있을 수 있다는 미련을 환기시키기 위해 교회를 재건할 것이라며 “1993년의 마녀사냥을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 케이코에서 집단생활을 해온 다윗과는 연방수사국대응국과 연방수

사국이 합동으로 교구 코레쉬를 미성년자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51일간 내지름을 벌이며 저항하다가 1993년 4월 19일 발생한 화재로 신도 95명중 86명이 사망했다. 사건 발생후 화재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집단사살이나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 연방수사국은 최후가스탄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시인했다. 1993년 화재에서 살아남은 뒤 케이코 근처에서 20여명과 함께 성경공부를 해왔다는 다윗과 신도 클리브 도일은 “새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단군상 미신우상 전립반대 철거 촉구 성명서

IMF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단합하고 국력을 모아야 할 이때에 한문화운동연합이라는 사실단체가 소위 통일기원 국조단군상이라는 플라스틱상 367개를 날조하여 교육의 산실인 학교와 공공시설 주요 도로변 등에 설치하므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온갖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역사를 오도하고 우리의 순수한 민족성을 변질시키며 미신 우상숭배를 조장하므로 사회불안과 국난위기를 초래하는 일임으로 우리 춘천시 350여 교회 4만 기독교인들은 구국의 차원에서 단군우상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역사성이 희박한 전조신화 속에 등장한 인물을 역사적 실존 인물인 인조왕으로 그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여 신앙하고 숭배하는 행위는 미신행위이며 지나치므로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둘째,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꿈이 담긴 용녀와 관계를 맺어 낳은 단군 한 사람만이 우리민족의 조상으로 피를 나눠줬다는 설화는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신화에 불과하다.

우리 민족이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민족임을 역사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조명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되도록 관계기관과 관련학회에서는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단군상 건립반대를 위한 춘천기독교 대책위원회
춘천시 단군 우상화 철폐 구국기도회 참석자 일동

셋째, 이와같이 불분명한 신화의 인물을 역사적 실존 인물인 양 온갖 위장술로 과장해서 어느 누구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모형을 플라스틱으로 날조해 세우고 국조단군상이라고 속인다면 우리 민족성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진실성, 정직성, 순수성은 모두 잃게 되고 말 것이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저 우상 앞에 절하고 빌기만 하면 복도 받고 동일도 된다는... 그런 것이 나라사망이며 민족단절이라고 가르치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와같은 거짓과 과장과 기만술로 날조된 단군상을 공공기관에서 즉각 철폐하고 차후 제작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넷째, IMF시대에 특정 종교를 위해 국비 37억7천만원을 들여 경남 하동군 묵재리에 세우고 있는 삼성궁(환인천, 환웅전, 단군전) 성역화 사업은 이유가 어떻든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는 역사적 교훈 앞에 경하회 회개하고 자손 만대에 복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미신과 우상숭배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사정되지 않음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문제의 책임도 한문화운동연합측과 감독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World Vision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

노래를 통하여 복음증거와 이웃사랑 실천을 하고 어린이음악발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합창단을 운영하며 매년 해민음악제, 각종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등을 통한 후원금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어린이 합창제 공연에도 출연하게 된다.

모집내용

- 신청서 접수 : 1999년 10월 21일(원서접수시 약보제출)
- 오디션 : 1999년 10월 23일 오후2시 복지관 3층 강당
- 대상자 : 초등학교 3학년~5학년생
- 내 용 : 수요일, 금요일 연습(키치키 차량운행)
- 문의할 곳 : 춘천시 효자1동 373-90

(0361-254-7244, FAX 251-1164) 담당자 : 최은경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장

성시칼럼

기독교 문화와 10월 문화의 달

한국정부는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하고 문화의 중흥 발전을 위하여 각종 문화를 발굴하고 행사 등을 통하여 계승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주류가 민족 무속문화인 것을 볼 때 안타깝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답답할 뿐이다.

광주비엔날레, 춘천마임페스티벌 등 세계를 향한 문화행사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행사는 민족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무속적인 것이다. 기독교 역사 100년간 자랑할만한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가치있는 것인데도 이렇다 할 기독교 문화행사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200만 기독교 인구와 5만여 교회, 춘천에도 350여교회와 4만여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독자적인 문화가 없고 민족 무속문화 행사의 물결에 휩쓸려 있는 현실에 유구무언인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자성하고 성시도시인 춘천에 알맞는 기독교 문화를 내놓아 무속적인 미신 우상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지도자들. 그들은 오늘 기독교 문화의 침체된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지 궁금하다.

성시화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춘천에서 시민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문화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전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춘천에는 기독교연합회, 교역자연합회가 있고 성시운동본부, 기독교방송국이 있으며 대학선교회 등이 있다.

"소양계"를 알리는 현수막이 사방에 걸려있고 신문광고 등 방법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이 추세는 용인제등 무속적인 것인데도 10월 문화의 달에 편승하고 춘천에 주요 문화행사로 부각시키고 있는 현실을 춘천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묵묵히서는 안될 것이다.

봉익산을 제2의 시내산으로

우리교장 춘천은 聖市(聖市) 운동(성시화 운동)의 시발지로서 "성시메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춘천의 성시와 운동이 전국 5개 도시를 거쳐 모든 도시와 세계로 향하고 있으며 연합회가 조직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모신 춘천을 통치하시는 신으로 높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춘천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춘천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봉익산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들과 대화하시는 성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산이 사단과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미신우상 무속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안주하고 무관심하는 동안 봉익산은 각종 무속에 깃들여 민심창이가 되고 있다.

춘천 도심(郡城)을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춘천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목요일 장소

와 시간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실천에 임하고 있어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일이며 모두가 동참하는 일이다. 한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성시와 기도모임을 매일 아침 봉익산 요소에서 드리는 일이며,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동참하여 열심히 기도로 사단마귀를 제압하는 일이다.

이러한 기도가 지속될 때 강원도정, 춘천시정, 교육, 경찰행정, 기업체, 시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총명한 은혜와 복을 주시므로 정의가 강할이 흐르고 살기좋은 도성이 될 것이며 시민들이 축복을 받고 남북통일을 위한 근거지로서의 봉익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신우상이 지배하는 봉익산으로 남는다면 혼란과 불법, 타락으로 가득찬 춘천시로 불행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산, 제2의 시내산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조준현 편집인)

축구로 연합하여 춘천을 성시화하자!

춘천기독교축구연합회(가칭)는 97년 소양강교회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임으로 은혜강교회, 삼천현교회, 지내리교회, 능사광교회, 광명교회, 춘일교회 등이 매 주 축구로 친교하고 있으며 은혜교회와 삼천현교회

는 10월 9일 오후 2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남산축구를 중심으로 친선축구경기를 가졌다.

춘천의 모든 교회가 축구로 하나되어 대외적인 선교전략에 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이승호 기자)

감리교 동부연회 기독교실업인회 모임

강원도 충청도지역교회 장로20명으로 구성된 실업인회는 97년 창립하였고, 국내외 선교사업을 주로하는 모임체제에 매 년 몇차례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26일 동부연회

춘천에 모여 신앙운동과 견학등을 할 계획이다.

회장 이덕수장로(영월중앙교회), 총무 심인성장로(춘천신성교회)

강원도청 직장선교회 특별기도회

박재복기도부장 주관 전회원 대상

최형선 도청직장선교회 부회장은 기도부장 박재복집사와 함께 11월초 기도원에 있는 특별기도회를 갖고 모든 회원들이 드는 믿음으로 재무장하여 직장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김복옥회장은 다리부상으로 성심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홍천지평판]

- 홍천동지평(이재호 집사)은 10월 6일~8일까지 홍천소요교회에서 강문호 목사(간도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연합부흥성회를 가졌다. 홍천중앙교회 학생회(서치호 목사)는 10월 9일 오후 3시 송동원예배를 드렸으며 전양집회를 갖고 홍천읍내 학생들과 친교했다.
- 홍천군신우회(김치경 회장)는 10월 17일 오후 2시 홍천연봉장교회(조석철 목사)에서 신우회원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4/4분기 헌신예배를 드리고 모범학생 2명에게 1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예배 후 신우회원간 불려, 즉구경기로 친교했다.
- 홍천중앙교회 송대경 집사는 10월 4일 은혜유치원 개원예배를 드렸으며 원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파하는 사랑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시신문 독자들의 중보기도를 비고 있다. (이상순 기자)

지성의 교육현장에 장승세워 비는 대학생들

- 기독교 5개동아리 미신타파 기도로 맞서, 한림대학교내 -

10월 5일 한림대 축제에 불신자 동아리에서, 후문연구에 장승을 세워 세우고 미신 숭배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목격한 기독교동아리 YWAM, C.C.C, IVF, JDM, UBF 등이 연합하여 미신타파, 장승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매일 아침 8시에 50여명이 모여 장승 주위를 돌며 여러고성 치럼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지성인을 교육하는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행사라는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할 일이다. 21세기 밀레니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원시적인 사마니즘을 내세우고 있는 대학가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성시신문사를 방문한 기독교동아리 대표들.

◆제일장로교회 박상호 목사

• 강원교회 성경고사대회와 성가경연대회가 10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제일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성경교회 윤철중 목사

• 종교동부 임시성회를 위한 제4차 특별세례기도회가 10월 11일~20일까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라"라는 주제에 계속되고 있다.

• 10월 17일 오후 2시 종교동부 임아남울 성가대(지휘 송영미)가, 24일은 초등부 다나엘, 사무엘 성가대가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춘천제일감리교회 차관식 목사

• 10월 4일 인접한 대지 180평을 구입 지하주차장, 교육관 등 204평 증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지 670평 연건축 면적 1000평에 주차장 400평으로 확장되었다.

신축된 교육관은 교회학교, 주부·노인대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게 된다.

• 10월 31일 1500여명의 전교인 체육대회가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광장감리교회 원기배 목사

• 할렐루야성가대(지휘 김현숙권사)는 창립26주년 기념으로 찬양집CD, 태일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가격: CD 3,000원 태일 개당 1,000원 문의전화: (0361)254-1379

◆성광교회 김광국 목사

• 청년부 10월 17일 오전 11시 인근 군부대를 방문,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두감리교회 김영원 목사

• 가을부흥 대성회가 11월 5일~7일 윤남목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릴 예정이다.

◆남춘천감리교회 유진형 목사

• 10월 20일~22일 성광대부교회로 LA할렐루야교회 한덕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개최될 예정이다.

◆평화감리교회 한 군 목사

• '99춘천복자화(한 군 목사) 성가대 세미나가 10월 25일~29일 저녁 7시 화천 제일감리교회(최현영 목사)에서 양세훈 목사·신창원 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개최될 예정이다. 24개 성가대원과 성도를 대상으로 한다.

• 삼일운동 80주년 기념 한 군 목사는 11월 1일~12일까지 무수리교회 헌치인 목사안수식 및 교회설립예배를 위해 중국할 예정이다.

◆석사감리교회 임택항 목사

• 10월 18일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에 있을 성시화연합선교대회가 불려없이 치러지게 하기 위하여 교육관, 기도실 내 TV 모니터 설치, 음반방식설치 등 세심한대까지 손을 쓰고 있다.

- 춘천 목회자 간담회 화기애애 -

• 김광국 춘천기독교교인연합회(성광교회담임)는 춘천목회자 간담회를 10월 16일 오전 12시 어린이회관 레스토랑에서 열고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99시초창원합복음성회 협력등 교회연합에 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World Vision종합사회복지관

이순훈 관장

• 월드비전 창립 50주년 기념 제13회 연합성가제를 10월 16일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관에서 가졌으며 순복음춘천교회, 중앙성경교회, 소양강성교회, 제일장로교회, 제일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남춘천감리교회 성가대의 합창연주가 있었고 월드비전 어린이합창단과 가스펠가수 "아침"의 특별출연이 있었다.

• 월드비전 어린이합창단 원주유치 공연이 10월 30일 오후 6시 30분 원주제일

감리교회에서 월드비전 원주지회 주관으로 "남북한 베고른 어린이를 위한 사랑나눔" 연주회가 있다.

• 결식아동돕기 "제8회 강원연합성가제"가 11월 13일 오후 5시 춘천문화예술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월드비전 강원도지부가 주최하고 흥천지회가 주관하게 된다. <신재권 기자>

파스텔 커튼

김 완 규 장로
이 죽 순 권사

춘천시 죽림동
제일백화점 1층

(0361)256-7620,
H) 011-368-9686

커튼, 버디칼, 브라인드, 롤 스크린,
홀딩도어, 도배장판

현대어린이집
'99년 작품전시회 초청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을 초청합니다.
교육적 환경과 작품을 관람하세요.
현대어린이집은 훌륭한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어린이의 꿈을 키워갑니다.

▷ 일시: 10월 30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춘천시 퇴계동 현대1차APT앞
현대어린이집 ☎ 255-0164

현대어린이집 원장 이 명 숙 드림

JDM, 대학가 사경회 열어
예수문화조성

와 보시라! 밀레니엄 준비 위한 영양 만점의 광장으로
베드로후서 사경회로 새로운 예수문화를 조각하는
캠퍼스 복음화와 춘천성시화의 현장에서 만납니다.

▷ 때: 1999년 10월 25일(월)~28일(목) 오후 7시
▷ 곳: 강원대학교 산내대 1호관 100호
(중앙도서관 뒤)
▷ 강사: 임상섭 목사
(JDM 춘천대표 디모데훈련학교장)
▷ 문의: 구영록 간사
(☎ 252-3192 H.P 016-361-3192)

예수제자운동 춘천지구 이사장 전 은 풍 장로
대표 임 상 섭 목사

정상교목사 강원소식지 자료집 기증 창간호부터 5개년자료 성시신문사에



정 상 교 목사



남원교회교목사 정상교목사(충청북도영광시 연탄리교회)는 9월 10일 오후 7시 성시신문명예기자 회칙식에 참석 예배교회를 통하여 기사의 역할과 봉사정신을 강조하였고 9월 4월 1일 창간하여 95년 5월까지 발행한 "정상교목사 소식지" 자료집 5개년분을 성시신문사 발행을 위해 아낌없이 본사에 기증하였다.

부록사님이 "정상교목사소식지"를 발행한 것은 당시 종교개혁의 소식지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독자적으로 발행하게 되었으며 6개년(창간호, 창간호, 창간호, 창간호, 창간호, 창간호) 교회소식의 부록이 되어 교회소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힘썼다. 매월 6백부를 발행하는데 정목사

단독으로 기사취재에서부터 편집일까지 담당하였고 출판비와 배달 등 어려운 작업을 주님의 명명으로 알고 감당했다.

소식지는 초교과 목사의 설교, 성경자료, 간증, 인물소개 등의 관을 두어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많은 보탬을 주었으며, 교회살림에 필요한 소식으로 물품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등 교광역할을 통해 하나로 연결하는 일에 공을 세운 일들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소식지는 타블로이드 규격에 흑백5면으로 30호씩 두 권의 자료집이다. 성시신문이 존재하는 한 "강원기독교소식지"는 살아있는 자료집으로써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순훈 장로 스리랑카 방문소감 흙벽돌집에 나뭇잎지붕 학교선생님만 슬리퍼 신고



이 순 훈 장로
(월드비전 춘천사회복지관장)

없이 날이 밝으면 일어나고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고 있는 삶이었다. 전기, 수도 시설이 없으니 가전제품은 물론 없었다. 그런데도 얼굴표정은 밝고 눈빛은 너무 맑았다. 이들의 삶은 좁은 집에 갇힌 것이 오히려 이쁨, 요도 되었다. 그들을 보는 우리 일행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스리랑카의 국민소득이 800불이라고 하나 이곳 주민들의 소득은 100불도 안 될 것 같았다. 일반직장인의 월급이 20불

도시노동자 월임금 1만원 정도라고 한다. 우리는 IMF로 국민소득이 6천불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너무 잘 살고 있다. 6. 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는 UN의 많은 나라들의 도움으로 일어났다. 이제 우리도 눈을 돌려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 올을 느꼈다.



스리랑카 가정을 방문한 이순훈 장로 일행.

10월 6일부터 1주일간 World Vision 해외 후원사업현장인 스리랑카 주민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었다. 스리랑카 기우는 후진지라고 예언이 많으며 어둠과 초라해 보였다. 3천여명 대식고 남자들은 치마를 입고 다녔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BUS(25인승)로 후원마을 에하라(EAHALA)까지 8시간을 가는데 차선이 없는 도로였고 비포장도로가 많았다. 에하라마을은 World Vision 후원으로 병설1동에 병설27개, 마을회관1동, 주택170동, 학교1동을 지어준 곳이다. 주민들은 맨발이었고 선생님들만 슬리퍼를 신고 흙벽돌집에 나뭇잎 지붕, 가재도구는 부엌에 그릇 몇 개가 전부였다. 직벽돌에 개화집을 건축했으니(1동 470불) 흙바닥에 방문은 천으로 가린 상태였으며 창문이 없는 집이라 캄캄했다. 등잔불이

성시신문 명예기자 전문교육 실시 명예기자 67명 기자단장에 감동영장으로 강사 강경중 강원일보사 출판국장



강경중 강원일보 출판국장 강.

춘천성시신문(위원장 조승환 목사)은 신문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한 명예기자 67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10월 4일 오후 6시 30분 평화강리교회에서

신문에 권위있는 강원일보사 출판국장인 강경중 강사를 강사로 명예기자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

로운 교육을 접한 명예기자들은 긴장한 태도로 강의를 들었다.

이날 모임에서 기자단을 조직하였으며 초대 단장에 감동영장으로(평화강리교회)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교육 후 운영위원회의에서 명예기자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기자수첩을 제작하여 초대기로 하였다.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는 명예기자 모습.



춘천지역연합장로회 헌신예배

허종구 회장은 10월 3일 저녁 7시 30분 광장교회(원기배 목사)에서 헌신예배를 드렸다. 사회 한주식 장로, 기도 박승택 장로, 원기배 목사의 설교와 성서교찬양단의 찬양이 있었고 예배 후 임원회의에서 11월 중 교역자연합회와 장로연합회가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김부희 기자)

장로연합회 수첩제작 협조 당부

허종구 장로 연합회장은 새로운 장로수첩 제작에 필요한 자료(성명, 소속교회,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교파별 장로님들에게 연락기로 결정하고 적극 동참을 바라고 있다.

강리교 김동열장로(평화교회) 243-5885 성령교 이상용장로(소양교회) 253-5313
정리교 김기선장로(성광교회) 252-4584 칠레교 임영일장로(춘천교회) 253-4227

성령의 폭발로 '99시민초청연합복음선교대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강사 : 인천송의감리교회 이호문 감독 주제: 성시화로 새천년, 새천년!!

■ 대회조직

- 고문: 권철명목사, 임정목사, 강원목사, 여운택목사, 김은일목사, 김진복목사, 김은양목사, 한석웅목사, 이상룡목사.
- 자문위원: 임태성목사, 윤철중목사, 김장수목사, 조남진장로, 배계성장로, 허 전장로, 한국인본부장, 원기배목사, 노정관목사, 이영호목사, 최운택목사, 영대집목사, 정성교목사, 권오서목사, 임신명목사, 이원호목사, 김중민목사, 이복규목사, 김병명목사, 원기배목사, 신철중목사, 방지산목사, 김동원목사, 장효근목사, 윤학원목사, 유진형목사, 정성문목사, 김형원목사, 오승환목사, 허 전장로
- 대회장: 김광국목사
- 부대회장: 박영관목사, 김주환목사, 허종구장로
- 총무: 한 군목사, (부)박상호목사, 신재원목사, 이학규장로
- 서기: 조영호목사, (부)박상안장로, 한주식장로
- 회계: 이영일장로, (부)김동열장로
- 전도분과위원장: 박인목목사, (부)유태희장로, 임영일목사
- 기도분과위원장: 이준일목사, (부)조은제장로, 신종철목사
- 예배분과위원장: 양현목목사, (부)손학근목사, 김문수장로
- 찬양분과위원장: 조병목목사, (부)전희복목사, 조병목목사, 홍성운장로, 김철수장로, 김병명목사
- 홍보분과위원장: 허태수목사, 김기대장로, 김병명목사

- 심의분과위원장: 사경목목사, (부)장기호장로, 이순훈장로
- 재정분과위원장: 윤병식장로, (부)최종민장로, 맹영웅장로
- 교육분과위원장: 이창희목사, (부)임신명장로, 김중철목사
- 청소년분과위원장: 박상철목사, (부)허정웅장로, 김남철목사
- 청년분과위원장: 윤대호목사, (부)황병호장로, 장준우목사
- 직장신교분과위원장: 윤교식목사, (부)이영규장로, 박우남목사, 김용배목사
- 청장년분과위원장: 김장환목사, (부)이인구목사, 이호익목사, 최은희목사
- 여분과위원장: 정인숙목사, (부)김영숙목사, 박용희목사
- 군선교분과위원장: 박영수목사, (부)박종호목사, 이무성목사
- 경찰신교분과위원장: 김유식목사, (부)이승오목사, 배기만목사, 송향순목사
- 시설음향분과위원장: 양기대목사, (부)김정하목사, 김수진목사
- 안내분과위원장: 하기철목사, (부)이은희목사
- 차량교통분과위원장: 김지현목사, (부)박승택목사, 이창목사
- 내빈명예위원장: 최석원목사, (부)이영규목사, 유근창목사
- 강사집회위원장: 김홍호목사, (부)한복희목사, 최선환목사, 김명진목사, 최민희목사

집회일정별 담당

무서 / 일시	10/18(월)			10/19(화)			10/20(수)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사 회	한 군 목사	임영일 목사	오승환목사	황영찬 목사	김태권 장로	김동원 목사	김주환 목사	한석웅 목사	한석웅 목사
대표기도	김영철 목사	유태희 목사	유진형 목사	박승택 목사	허종구 장로	정성교 목사	차근식 목사	차근식 목사	차근식 목사
축 도	김철수 목사	윤학원 목사	최운택 목사	신철중 목사	신철중 목사	신철중 목사	신철중 목사	신철중 목사	신철중 목사
말씀봉독	최종민 장로	이상용 장로	김기대 장로	박승택 장로	박승택 장로	박승택 장로	박승택 장로	박승택 장로	박승택 장로
현귀기도	조영호 목사			원기배 목사			박인근 목사		박인근 목사
인사말씀	김광국 목사						김광국 목사		김광국 목사
찬 양 대	석사 김리	신성 김리	성 광 장로				송복을 춘천	송 영 성	송 영 성
특별찬양	정지서 사도		이상조 집사				김충현 장로		김충현 장로
인내위원	송영 성			송영 성			송영 성		송영 성
현귀위원	제일 장로	소양 성	송영 성	송영 성	송영 성	송영 성	송영 성	송영 성	송영 성